

BIEN Congress 2023

공유지와 기본소득

안효상(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)

출발점

- 커먼즈와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전환적이거나 변혁적이지는 않다
- 물론 커먼즈와 기본소득은 각각 현 체제, 즉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와 불화할 수 있다.
- 커먼즈와 기본소득이 전환적 혹은 변혁적이기 위해서는 현 체제, 즉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대안적 전망 속에서 각각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,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.

기본소득의 위상

1) 체온계이자 풍향계

기본소득이라는 낯선 아이디어의 부상은 위기를 반영한다.

2) 현재의 위기의 해소 방향에 대한 서술

기본소득은 전환의 방향과 원칙을 가리킨다.

공유지의 위상

- 1) 보통사람들(공유자)의 생계의 조건으로서 특유한 가치와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자 관계
- 2) 자본주의 사회의 배경, 즉 자본주의적 수탈의 공간
- 3) 미래 사회의 경제 활동의 망아

기본소득의 난점과 공유부/ 공유지 관점의 도입

- 현대의 지배적인 분배 원리와 형태
 노동에 의한 소유: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표면적인
 필요에 따른 (재)분배: 복지국가의 관점
-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원천적 공유/ 생산의 사회적
 효과에 근거한 분배 방식이자 형태

근대적 분배 원리 성립의 교차로

어떤 분배 방식이든 공유라는 전제에서 출발

- 1) 자유주의적 해결책: 인간(개인)의 노력에 거의 전적으로 정당성 부여
- 2) 사회민주주의적 해결책: 인간(개인)의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생존권 보장
- 3) 공산주의적 해결책: 공동 소유, 공동 노동, 공동 향유 (재산과 노동의 공동체)
- 4) 토머스 페인의 개입: 이중의 소유권과 자연적 소유권에 대한 모두의 권리

공유지의 (재)등장

- 신자유주의적 공유지 포획과 강탈 속에서 공유지의 존재 부각
- 제도화된 사회 질서로서의 자본주의 내에서 벌어진 경계 투쟁
- 생계를 위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는 공유지 규범의 파괴 및 이에 대한 방어

공유지의 (재)등장의 두 가지 효과

1)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

착취와 수탈의 결합: 이는 자본주의가 '비경제적' 부문을 필요로 한다는 것, 이는 자본주의적 분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

2) 공유지가 잔여 범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공유화가 핵심 요소라는 것을 드러냄

전환의 전망

- 자본주의적 경제적 착취, 비합리성, 자본의 전제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수탈과 분할에 기초한 지배까지 극복할 때 비로소 포괄적인 진보적 전환이 가능
- 공유지는 경제에 대한 사회의 우위, 자율성, 연대의 근거지로서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
- 이때 공유화는 인간의 삶과 삶의 배경에 대한 재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줌

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

- 낯선 분배 원리이자 형태인 기본소득의 정당화에서 한 차원을 더한 것임
- 이때 기본소득은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가지게 됨
- 더 나아가 근대의 지배적인 노동/소유 패러다임 자체를 문제삼는 것

기본소득과 공유지

-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공유지의 특수성: 모두의 것과 우리의 것
- 분배 원리와 형태로서의 기본소득과 이용과 필요에 기초한 공유지
- 공유지의 중층성: 우리는 모두는 n개의 공유지의 공유자
- 공유지 기금과 배당

기본소득과 공유지가 부패하거나 포섭되는 문제

- 기본소득은 시장주의 및 개인주의로 미끄러질 수 있으며,
- 공유지는 전통적인 위계 및 빗장 공동체로 퇴행할 수 있다
- 이러한 부정적 경향을 막고 사회적, 생태적 전환의 일부이자 주요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더 커다란 전망 속에서 기본소득과 공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

사회적, 생태적 전환 속의 기본소득과 공유지

- 불평등의 완화 및 생태적 삶의 지향
- 전환을 향한 민주적 결정에 참여
- 생태적 사회의 주요한 경제 활동의 양식으로서의 공유지

감사합니다